

“애들이 반가워”... 초등 새내기 첫 등교

어제 유치원·초1~2 등
등교수업으로 친구 만나
“처음보는 친구들과
친해 질 생각하니 떨려”
학교마다 방역에 주력

“선생님 말씀 잘 들어서 코로나19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일 제주시 남광초등학교에는 고사리 손으로 부모님을 붙잡은 초등 학교 1~2학년 학생들이 설레는 표정을 지은 채 학교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날은 지난 20일 고3에 이어 고2·중3·초1~2·유치원·특수학교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개시한 날이다.

부모님과 학교에 들어선 아이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배정된 반 숫자가 적힌 팻말로 가서 손 소독제와 물비누,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수령했고, 이름과 반 숫자가 적힌 목걸이를 착용했다.

이후 부모님과 헤어져야 하는 순간이 왔지만,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는 없었다.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발열체크도 받은 뒤 침착하게 교실로 들어갔다. 책상을 시험을 치를 때처럼 서로 간격을 둔 채 한줄로 배치돼 있었다.

담임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와 “왜 마스크를 착용했을까요”, “우리 학교 이름은 뭐가요”라는 질문을 던지자 아이들은 일제히 “코로나 때문이요”, “남광초등학교”라는 답변을 앞



27일 등교수업이 시작된 남광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들이 학교로 들어오고 있다.

이상국기자

다뒀 말했다.

1학년 한도윤 어린이는 “처음보는 친구들과 친해질 생각을 하니 떨린다. 집에 있는 동안에는 EBS로 강의를 들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완료했다”며 “선생님 말씀 잘 들어서 코로나19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학년 홍주혁 어린이도 “긴급돌봄을 하면서 친해졌던 친구가 같은 반에 몇명 있어서 다행”이라며 “개학이 연기되는 동안에는 밖에 거의 나

가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놀이나 강의를 들었다. 오늘 처음 보는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남광초 1학년 4반 담임인 이현지 교사는 “아이들이 수시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곳곳에 싱크대와 세면대를 준비했고, 이를 알리는 안내문도 붙여놨다”며 “또 서로간의 접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혼자 할 수 있는 색칠하기, 책읽기 등의 활동을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사는 “1학년 학생들은 모둠활동, 짝생활 등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걱정이 많다”며 “아이들이 학교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학부모와의 소통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등교에 나선 학생은 총 3만3208명이다. 학교별로 보면 유치원 6324명, 초1~2 1만3764명, 중 3 6213명, 고2 6430명, 특수학교 477명 등이다. 송은범기자

액비 350~400t 예래천 타고 바다로...

서귀포시·자치경찰 현장 조사
수산자원 피해 상황 모니터링

속보=지난 26일 서귀포시 색달동의 중문골프장 축산 액비(액체 상태의 비료) 유출 사고와 관련해 현장 재조사가 실시됐다.

서귀포시는 자치경찰과 함께 27일 오후 사고 경위에 대한 현장 재조사를 실시했으며,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액비 저장 탱크와 26일 예래천에서 채취한 시료를 제주농업기술원에 검사 의뢰했으며, 유출된 액비가 기준치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만약 액비 부속도, 중금속

기준 등 기준치에 부합하지 않는 액비로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지난 26일 중문골프장에서 축산 액비가 유출돼 예래천을 따라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낮 12시쯤 검붉게 변한 예래천을 본 주민에 의해 신고됐으며, 서귀포시 관계자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중문골프장에서 사용하려던 액비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유출된 규모는 350~400t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바다로 유입된 액비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7일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비자림 공사재개놓고 또 찬·반 움직임

반대측 “도, 대책없이 강행”
찬성측 공사현장서 “환영”

제주특별자치도가 ‘삼나무숲 파괴’ 논란을 산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중단한지 1년 여만에 재개하면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공사 반대 측인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27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비자림로는 팔색조를 비롯한 긴꼬리딱새, 붉은해오라기 등 법정보호종들이 날아와 번

식을 준비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대체 서식지도 마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는 대체서식지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제주도는 예산 절감과 생태계 훼손 최소화, 주민 불편 최소화를 이룰 새로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비자림로 공사 재개 현장에는 확장공사에 찬성하는 인근 마을 주민들이 나와 확장공사 재개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기자

문섬 일대 ‘해중경관지구 조성’ 본격

400억 투입 2022년 복합해양레저체험센터 등 완공

제주의 해양레저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견인할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적인 스킨스쿠버 명소인 서귀포시 문섬 일대를 해중경관지구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용역을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며 주민설명회와 공유재산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적극 이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문섬 일원과 서귀포항만 부지에 사업비 400억원(국비 200·도비 200)을 투입, 지난해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4개년 동안 해양

레저체험센터와 해상다이빙 및 선박계류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귀포항에 들어서는 해양레저체험센터는 연면적 4500㎡, 지상 4층 규모다. 초급 다이빙과 스킨스쿠버 등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실내 다이빙 체험교육장, 서핑보드 체험장, 해양레저 전시 홍보관, 강의실 등의 시설이 갖춰진다.

아울러 육상시설물의 안전과 해상다이빙과 스쿠버 체험 공간 마련을 위한 외곽시설 설치 및 문섬 다이빙

포인트로의 이동을 위한 간이 선박계류시설도 설치된다.

도는 해양레저체험센터와 선박계류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승인 요청한 상태이며, 건축물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제주도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향후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제주에서 사계절 내내 실내·외에서 해양레저체험이 가능하다. 이에 따른 문섬과 서귀포항 주변에서의 해양레저 관련 관광상품과 연계한 해양레저복합단지로서의 기능을 갖출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문섬 일대는 2018년 해양수산부의 해중경관지구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백용탁기자

참여연대 “하수문제 물 절약으로 해결해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가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장 처리 용량을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 “하수 문제는 절수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기본 계획이 시설 용량 증설로 결론 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7일 논평을 통해 “도는 하수처리장 방류구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하수 방류를 숨기려는 의도로 읽힌다”며 “도정이 가장 우선해야 하는 가치는 도민 삶의 질과 환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민기자

“제주외고 존폐위기 속 심각한 학습침해 반야”

학교운영위 청원서 제출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모형을 검토하기 위한 제주도교육청의 공론화 계획에 반대하는 청원서가 제주도의회에 접수됐다.

제주외고 학교운영위원회는 27일 제주도의회를 방문해 ‘제주외고 교육공론화 중단 청원서’를 제출했다.

운영위는 청원서를 통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의중은 제주외고를 신제주권으로 이전해 일반고로 전환, 신제주권 일반고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그 근거로 2015년 작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고

교체제 개편 연구용역’을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학교운영위는 “제주외고 재학생과 동문, 학부모는 학교 존폐의 위기 속에서 모교가 정체성을 잃고 사라질지 모른다는 염려와 함께 심각한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제주외고가 소재한 애월읍 고성리 주민들 역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을 추진한다면 학교부지 체납에 대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운영위는 “제주 공립학교의 자량이 돼야 할 제주외고를 꼭 지켜야 한다”며 일방적 공론화 중단 및 제주외고 발전계획 수립을 거듭 촉구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축 선

제21대 국회의원 (제주시 갑) 제21대 국회의원 (제주시 을) 제21대 국회의원 (서귀포시)



송 재 호



오 영 훈



위 성 곤

제21대 국회의원 당선 및 의정활동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회원일동